

참마음 챙기며 부처로 살아가세요

대원 스님의 가르침

산 승이 말없이 잠이 앉아 있었 습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입으로 말하고 글자로 보 여주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무엇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전해진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청하는 대중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공양을 드시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중은 부처님께서 그런 연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리불존자란은 뜻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합니다"라며 절을 하였습니다. 오직 사리불존자만이 말없는 법문의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도 소리 없는 법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문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문이 어느 곳에는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머거리, 눈먼 소경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가 훨씬 넘치고 있음을 보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의 부모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인사를 안 해도, 쓰레기를 버려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이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놀지 마라' '좋은 일 해라'고 말해도 자식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공자 같은 좋은 말을 해도 자식에게는 그저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푸른 허공과 같고 맑은 물처럼 의식이 깨끗하면 누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그 속에서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참선수행을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9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뜻으로, 마음으로 다 했는데, 다만 중생이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 설법을 한 것입니다. (주장자를 들며) 제가 주장자를 들어 보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알아차리는 이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지혜 속에 자신은 물론 가정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손톱만큼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으면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로지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하면 중생이 청정해집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과 같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요즘 정수기 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물을 먹지 못하고 정수기 물을 먹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은 물론 땅이며, 공기까지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



공부해라 놀지마라 잔소리일뿐 부모가 가부좌 틀고 앉아보세요 가정이 바로 서고 세상이 달라져

다. 그것은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여러식을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사는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만이 공해는 아닙니다. 의식의 공해는 더한 공해입니다. 결국 환경오염도 마음의 공해에서 생겨났습니다. 한 생각 마음을 맑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세상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청정해져야 합니다. 또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집안에서 참선수행을 하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그러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화림사에는 서양의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불교를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참선법을 가르쳐주어도 가부좌를 하지



대원 스님은 늘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회향할 것을 강조한다.

못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다보니 가부좌가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밤새 참선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들의 열정과 도전은 대단합니다. 불교공부해서 이 세상을 바로 잡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만 합니다.

내면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불자들이 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합니까?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입니다. 참선을 하는 이유는 근본자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면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면까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혜안을 열어주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참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니, 부처가 아닌 줄 알겠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중생이 아니고 분명 부처입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심으로 보살펴야 할 부처입니다. 앞으로는 꼭 부처로 살아가십시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7>



우란분절에 '재'를 올리는 뜻

'제사'가 아니라 '재'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의 세계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조상을 숭배하는 풍습이 생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가 시켜 빌어드리던 대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부답이 되더라도 비용을 내어서 조상님의 천도를 빌면 내 정성을 조상님이 돌입을 삼간다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신을 산만하지 않게 하고 근신합니다. '재'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戒 지키며 삼가는 날 승가의 덕 기리는 날 부모·조상 보은의 날

그런데 백중날 절에서 올리는 의식은 '제사'가 아니라 '재'입니다. 재(齋)는 '공손하고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깨끗이 몸을 씻고 종일 잡다한 일들을 피하

조상과 아귀는 무슨 관계인가

경전에서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살아 생전 남에게 밥 한 톨도 줄 줄 모르는 너무나도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귀(餓鬼)인 귀신 세계에 가서 낡다고 합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도움을 청하자 부처님이 7월15일 하얀거울을 마치는 날에 승가에게 깨끗한 음식을 올리라고 방법을 가르쳐준 데에서 우란분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아귀는 썩레타(pretā)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썩레타'는 나보다 먼저 살다간 사람,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조상이지요. 고대인도에서는 세상을 떠난 조상은 자신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여겼고 이것이 불교에 들어와서 저승에 간 조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별교시대사전, 종촌원 지음, 162쪽).

살아서 선업을 잘 지었다면 굳이 남(자신)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아도 맘껏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상세계로 가거나 또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요, 살

배고픔을 느낄 사이도 없이 고통을 받거나 축생세계에 떨어져 천대를 받으며 제 힘으로 먹을 것을 찾아 종일 들뜬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생들은 선업과 악업을 적당히 섞어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제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어찌다 산 자의 공양을 받아도 욕심이 앞서 그만 죄다 잃고 맙니다. 배불리 먹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이야 남 못지않지만 욕심이 항상 그에 앞지르니 오직 고통 속에서만 신음하는 것이 아귀세계이며, 지금 살아 있는 우리의 다음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왜 하얀거울 마치는 날 천도할까

그렇다면 쇠뿔 같이 많은 날 중에 왜 하얀거울 마치는 날에 재를 올리는 걸까요? 기억할 것은,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지 않고 욕심과 성냄과 여러식음을 얹은 청정한 승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음력 7월15일은 하얀거울을 마치는 날입니다. 이날 스님들은 안거 기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에 티끌

만큼이라도 그릇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거나 또는 도반의 지적을 달게 받고 참회하는 '자자'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치열한 쇠뿔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참회의 쇠까지 끝내었으니 7월 보름인 우란분절은 승가가 일 년 중에 지혜의 힘이 가장 깊고 강하며 윤리적으로 깨끗한 날입니다.

이렇게 상서로운 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재가자들이 승가에 '한 톨'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톨'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담습니다. 바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내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부모는 백세가 되도록 병 없이 사시고, 모든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며, 7세의 부모님은 아귀의 고통을 떠나서 천상이나 인간세상에 태어나 한없이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설우란분절)

우란분절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비는 날이 아니라 계를 지키며 삼가는 날입니다. 승가의 높은 덕을 기리고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준 부모님과 조상님이 진리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승가의 청정한 힘을 빌려 간절히 비는 보은의 날입니다.

■ 이미명(동국대학교원역경원원)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대중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06년 여름호(통권 2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 6년간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제가불교를 생각한다

- 제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 ----- 박경준
- 제가자의 해탈은 어디에 있는가 ----- 허우성
- 수행과 삶은 둘이 아니다 ----- 박영재
- 원불교 계가자로서의 삶과 수행의 조화 ----- 최영돈
- 이상적인 계가불교를 위한 제언 ----- 성태용

기획연재 ②

- 건축에 스며든 선의 정신 ----- 김홍일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센터 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1만원씩 이체됩니다.

자료발굴

백제 성왕의 일본왕 견임과 불교 포교 ----- 홍윤기

논단

- 진각국사 무의자 선시의 미학 ----- 학해 스님
- 불교출판의 현황과 과제 ----- 홍사성
- 호탄불교, 접근을 위한 첫걸음 ----- 한지연
- 섬 같은 불교, 피자 같은 불교 ----- 이민웅

강연연계

불교와 그리스도교, 그 소통을 말하다 ----- 서명원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입금후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국민은행 : 038-25-0008-365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